

센터소식

❖ 센터 국제교류 현황

○ 제10차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PECERA)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장명림, 문무경 연구위원과 박수연 연구원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대학교에서 ‘유아교육에서의 다양성의 조화(Towards Unity amidst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PECERA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음. 장명림 연구위원과 문무경 연구위원은 KICCE Special Session을 통해 ‘한국의 유아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 for Young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ies: Languag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과 ‘한국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Policy Initiatives for the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Outcomes and Limitations)’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음. 이외에도 서문희 연구위원과 박수연 연구원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별 비용 적용 방안(Assessing the Applicable Fees Depending on the Time of Use at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과 김은영 부연구위원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의 요구(Perspectives of Practitioners and Parents on the Improvement of Inclusive Educ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됨. 또한 국외 참석자를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ICEP(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 Education Policy)」를 홍보하였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개발 관련 자료 수집

김은영 부연구위원과 조혜주 연구원은 기본과제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음. 동경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어린이발달교육센터 소장인 오오토 교수를 면담하고 일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음. 또한 동경의 오차노미즈대학 부속유치원과 오오즈나 보육원, 카나가와현의 오오즈나 보육원과 오오즈나 모리노기 보육원, 이또시의 노마자유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기관장을 면담하고 시설설비를 견학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센터 동정

○ 육아정책개발센터-숙명여자대학교 연구협약 체결

본 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육아에 대한 학술·연구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학술연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공동연구
- 나. 육아정책연구 관련 정보수집, 생산, 공유, 상호지원
- 다. 육아정책연구 관련 세미나 공동 개최
- 라. 기타 육아정책연구 관련 제반사항 상호 협력

○ 보육사/다음세대 김갑기 대표에게 감사장 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아교육 전문 기업인 보육사/다음세대를 1963년에 창업하여 반평생 유아교육의 외길을 걸어온 김갑기 대표는 육아지원 연구의 활성화 및 우리사회 소외계층 가정의 영유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총 7세트와 날권 180권의 방대한 도서와 놀이방매트, 장난감, 칠판, 악기, 교구장, 블록쌓기 등 다양한 교재·교구 등을 본 센터에 이김없이 기증하였다. 본 센터는 감사의 보답으로 지난 8월 27일에 김갑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기증받은 도서, 교재, 교구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영유아들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영유아들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서울의 공릉, 한빛, 가양7,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인천의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의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등 총 6곳에 도서 120권을 전달하였다. 나머지 도서, 교재, 교구는 9월 중에 하나원과 중국 연변의 유치원을 방문하여 기증할 예정이다. 그밖에 코피노 재단을 통해 현지에서 불우하게 생활하고 있는 KOPIN(한국인과 필리피노 사이에서 태어난 2세)아동들에게 도서를 기증하였다.